

한국어교육을 위한 의문기능을 나타내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 분석 -한·중 대조분석을 중심으로*

황정혜**

Huang,Zhen-Hui, An Analysis on the Aspect of Final Endings with Interrogative Function for Korean Education. This study considers ‘-ke(-게), -neunde(-는데), -dako/daku(-다고/다구), -(eu)ryeoko(-(으)려고), -ko/ku(-고/구)’ as target which are both connective endings and final endings with interrogative function. In order to make Chinese learning Korean use proper expressions like native speakers, this study extracted context of native speakers from spoken discourse and translated this to Chinese. Comparing Korean with Chinese, looking for differences of interrogative degree and structures,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Korean learners. However,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structural elements which are devoted to forms and interrogative function. Also, interrogative sentences with similar meanings and functions in Chinese and Korean. Consequently, in order to reduce confusion by learners, this study analyzed the use aspect of final endings with similar meanings according to circumstance context in spoken discourse. As this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usage of how to question a person, this study is meaningful at this point.

Keywords: Interrogative Sentence, Spoken Discourse, Discourse Circumstance, Discourse Context, Final Ending

1. 서론

구어단화에서 연결어미¹는 비종결어미로서 단어나 구, 문장 등을 잇는 연결의 기능을 하지만 종결어미처럼 문말(文末)에 쓰이어 종결기능을 하기도 한다.

* 본 연구는 지난 6월 중국문화대학교에서 주최한 제 5 회 서태평양 한국학·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본고는 익명의 논문 심사위원의 평가에 따라 맥락에 대한 연구 대신에 한중 의문문과 한중 의문문의 의미기능 실현 요소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연세대학교 한국학 한국어교육전공 박사과정

¹ 다양하게 발달한 한국어의 어미는 위치에 따라 전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뉘고, 어말 어미는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비종결어미는 다시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로 나뉜다.

(1) 가. P3: 야야 너 몇 시에 가야 되는데? 일찍 가야 돼?

(喂喂 你得几点去(呀)?)

P2: 한 여덟시쯤? <일상대화>

나. P2: 나 아침에 울었그렇 인니?

P3: 울었다고? (你哭了(吗)?)

P2: 네. 몇 번 울었어요. <일상대화>

다. P1: 만날려고? (要见面(吗)?)

P2: 네. <일상대화>

(1)에서 보다시피 연결어미로 쓰이던 어미들이 문말(文末)에서 의문사 ‘몇’이나 상승 억양(물음표)²와 함께 쓰여 의문을 나타내면서 종결기능을 한다. 의문사 ‘몇’을 제거하면 (1’-가)는 ‘야야 너 가야 되는데?’로 되어 의문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도 달라진다. 그리고 억양(물음표)를 제거하면 (1’-나, 다)는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서술문)이 되며 의미가 역시 달라진다. 이와 같이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는 의문사나 억양(물음표)와 함께 사용되어 의문기능을 나타내는데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어떤 경우에 비종결어미가 의문기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다.

(1)’ 가. P3: 야야 너 가야 되는데?

나. P3: 울었다고

다. P1: 만날려고

그래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한국어를 습득할 수도 있는데 (1-가)의 한국어 문장은 의문사 ‘몇’과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는데’와 어울려서 의문기능을 나타내고, 번역된 중국어 문장은 의문대사 ‘几’와 어기조사 ‘呀’를 사용하여 의문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어기조사 ‘呀’를 생략하고 의문대사 ‘几’만으로도 의문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그

² 배진영·최정도·김민국(2013:40)의 <표1.4.1>에서는 21세기 세종 구어 말뭉치의 억양기호에 대해 마침표는 하강 억양, 물음표는 상승 억양, 느낌표는 환기에 넘치는 기운찬 어조, 점표는 약한 상승이나 하강 억양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리고 (1-나, 다)의 한국어 문장은 억양(물음표)와 함께 쓰여서 의문기능을 나타내지만 이에 대응된 중국어 의문문은 어기조사 ‘吗’나 억양(물음표)를 사용하여 의문기능을 나타낸다. 즉 번역된 중국어 문장은 각각 ‘你得几点去/你得几点去呀, 你哭了吗/你哭了?’, ‘要见面吗/要见面?’으로 표현되어 의문기능을 나타낸다. 이로써 한국어와 중국어 의문문의 의문기능을 나타내는 요소는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중 의문문의 의문기능을 나타내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제 한국인들의 발화를 담은 21세기 세종국어원 시말뭉치³ 80만 어절을 연구자료로 하고 분석 단위는 주로 연구자료에 명기된 문장부호(물음표)를 기준으로 하며⁴ 본고에서 제시한 다수의 예문은 세종국어말뭉치에서 반체하였으며 발음, 문법이나 이휘적 오류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였다. 본고는 먼저 세종국어말뭉치에서 구어상 자주 사용되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⁵ ‘-는데’, ‘-고/구’, ‘-게’, ‘-(으)려고/(으)러구’, ‘-다고/다구’ 등을 추출한 후, 이를 중국어로 번역할 것이다. 다음, 한국어 의문문과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의문문의 대조⁶를 통해 한중 의문문의 의문기능 실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밝히는 것으로

³ 이하에서는 21세기 세종국어원시말뭉치를 세종국어말뭉치라고 한다.

⁴ 원시말뭉치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문장부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즉 누락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담화 맥락에서 일일이 확인하여 맥락상 의문기능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함께 포함하였다.

⁵ 손옥현(2009:17)에서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를 선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본고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첫째, 명제의 내용을 완성하고 둘째, 문말에 위치해 문장 종결의 기능을 수행하며 셋째, 평시형, 감탄형, 의문형 등 다양한 문장종결법으로 실현될 수 있고 넷째, 반말이나 반말에 ‘-요’가 붙은 형태로 상대 높임법을 실현하며 다섯째, 문장을 종결하는 끊어짐의 억양이 수행되는 것. 또는 끊어짐의 억양이 수행되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후행 발화를 생략함으로써 전략적 기능으로 사용한 것.

그리고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한 국어학에서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태엽(1998)과 유현경(2003) 등이 있고 담화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손옥현(2009), 백수진(2010), 이현정(2014) 등이 있는데 본 연구와 연구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하지 않았다. 또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태엽(1998), 전영진(2011), 손옥현(2009), 목시선(2015)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⁶ 대조분석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유의 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학습자의 난점이나 오류를 결합해서 분석하면 외국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 전이가 늘어나면서 부정적 전이가 감소하고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서 한국어 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중 의문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왕예(2010), 왕페이(2011), xing xiaofang(2013), 소남(2014) 등이 있는데 왕예(2010)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의문문의 구성 요소와 유형에 대해 분석한 뒤, 두 언어의 의문문이 간접화행이론에서 실행하는 의미 기능을 대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현지인의 실제 대화 대신에 TV 드라마에 나타난 대사를 대조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물과 상황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분석 자료의 한계가 있다. 왕페이(2011)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문문의 형식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차이점과 유사점을 제시하였다. 소남(2014)에서는 중국어 의문문과 한국어 의문문의 개념, 유형, 구성 요소의 특성을 대조하였다. Xing xiaofang(2013)에서는 한·중 의문문의 실현 양상의 특성, 한·중 의문문의 분류 체계, 그리고 한·중 의문문 각 유형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에 대한 대조 분석을 통하여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는데 본고의 연구 취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종결어미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이 아쉽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중 의문문의 대조를 통해 의문문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 형태적 특징 등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제시하였지만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가 문장에서 의문기능을 실현할 때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논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한중 의문문의 개념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고 의문문의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릴 것이다. 다음, 한중 의문문의 실현 요소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가 의문기능을 실현할 때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밝히고 더 나아가서 이에 내용되는 중국어 의문문과의 대조를 통해 같은 의문의미를 나타내는 한중 의문문의 의문기능 실현 요소의 차이점과 비슷한 점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2. 한중 의문문의 대조

2.1 한중 의문문의 개념

한중 의문문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 의문문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

표준국어대사전(1999)	연세 한국어사전(1998)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하는 문장. 의문형 어미로 문장을 끝맺는데, “기거서 무엇 하고 있니?”, “아직도 밖에 비가 오느냐?” 따위이다.	의문문은 무엇을 물어서 답을 듣기 위한 형식이다.	의문문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진술하여 그 대답을 얻기 위한 문장. 의문기능을 가진 종결어미로 문장을 끝맺으며 끝에는 물음표를 찍는다.

<표 1>에서 보듯이 위와 세 가지 사전에서 한국어 의문문의 개념에 대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물어서 답을 얻기 위한 문장’이라는 것이다.

<표 2> 중국어 의문문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

新华字典	现代汉语(1995)	实用现代汉语语法(2001)
表示询问或反诘的句子。(질문이나 반문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用疑问语气的句子是疑问句。(의문어기를 사용한 문장이 의문문이다.)	提出问题, 以便从对方获得信息, 主要出现于对话中。典型的疑问句既不肯定什么, 也不否定什么。(질문을 제시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인데, 이는 주로 대화 중에 나타난다. 전형적인 의문문은 무엇을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다.)

<표 2>에서 중국어 의문문 역시 한국어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질문을 나타내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의문문은 서법의 하나로 간주되며 평서문, 명령문, 감탄문과 함께 한국어의 서법체계에 포

『중국어에서 어기(语气)란 화자의 명제나 청사에 대한 태도나 자기 발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의도를 뜻한다(무호민, 2013:02). 학자들의 관점을 보면 의문어기는 어기중 하나로 문장에서 어기조사와 어조(억양)를 이용하는 것이다(소남, 2014:10).

함된다. 서법이란 화자의 청자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문장의 종결어미에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의문문은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가 문말(文末)에 쓰여서 종결어미와 같이 의문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한다.

2.2 한중 의문문 실현 요소의 대조

2.2.1 한중 의문문 실현 요소

한국어 의문문을 실현하는 요소로는 주로 억양, 의문어미, 의문사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억양은 한국어 의문문을 실현시키는 필수적인 방식이다(xing xiaofang, 2013:20). (2)와 같이 ‘-게, -고-, 으려고’ 등의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와 억양(물음표)가 함께 쓰이어 의문기능을 나타내며 의문어미 ‘-니, -냐, -(으)니까’는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의문기능을 나타낸다. 한국어 의문어미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성립시키는 형태적 표지이면서 억양 다음으로 가장 비중 있는 요소이다.

- (2) 가. 색깔 다 다르게 하게?
 나. 부모님은 안녕하시고?
 다. 너도 라면 먹으려고?
 라. 매일 커피를 마시니?
 마. 넌 요즘 뭐가 가장 힘드냐?
 바. 우리 오랜만에 좀 걸으까?

그리고 의문사는 화자가 자신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는 어휘적 요소이며 특히 설명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의문사는 의문문을 이루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지만 의문문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문사는 질문에 초점이 있으면 의문사의 역할을 하지만, 질문에 초점이 놓여 있지 않거나 서술, 명령, 청유 등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발화에서는 미정사(부정사)가 된다(이창덕, 1992:122). 한편 이은섭(2005:71)에서는 한국어 의문사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체계로 정리한 바가 있다.

- 가. 의문 대명사: 누구, 무엇, 어디, 언제
- 나. 의문 수사: 몇, 얼마
- 다. 의문 관형사: 무슨, 어느, 어떤, 어떤, 어떤
- 라. 의문 부사: 어떻게, 왜, 어찌
- 마. 의문 동사: 어찌하-, 어떠하-, 어찌-
- 바. 의문 형용사: 어떠하-

다음, 중국어 의문문을 실현하는 요소에는 의문어조(물음표), 어기조사, 의문대사(의문사), 부정표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중국어 의문 어기조사는 문장의 끝에 위치함으로써 의문문의 실현요소 중 제일 독특한 의문표기이다(xing xiaofang, 2013:21)⁸. 의문 어기조사는 초기에 ‘吗, 么, 呢, 吧, 啊, 呀, 哇, 哪’ (吕叔湘, 1982)로 인식되었으나 많은 학자들의 시험 결과와 비교연구를 통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吗, 呢, 吧’ (兰巧玲, 2007:14)로 인식되고 있다. ‘吗’는 주로 시비의문문⁹에서 사용되어 ‘예’나 ‘아니요’로 대답을 기대한다. ‘呢’는 주로 특지의문문, 선택의문문, 정반의문문에서 사용되어 따지는 의미가 내포된다. ‘吧’는 ‘呢, 吗’보다 의문의 정도가 떨어지고 추측이 많이 나타난다(왕정, 2014:37). 아래 예문에서는 의문 어기조사 ‘呢, 吗, 吧’가 의문문을 실현하는 중요한 문법 표지이다.

- (3) 가. 你是韩国人吗? (한국사람인가요?)
- 나. 饿了吧? (배고프지?)
- 다. 现在走吗? (지금 가요?)
- 라. 明天去台湾出差吧? (내일 대만으로 출장가지요?)
- 마. 你在学习呢?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어조(물음표)는 의문문을 실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어기조사는 의문문이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xing xiaofang,

⁸ 이기조사는 화자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감정전달 기능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는 성조언어인데 성조는 문장과 문장의 의미구별 역할을 담당한다. 문장에서 나오는 음조는 语调라고 한다. 어조와 어기조사는 통합되어 语气라고 부르며, 여기는 문장 전체의 어기를 뜻한다.

⁹ 중국어 의문문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왕정(2014)을 참고하도록 한다.

2013:21)¹⁰. (4)를 보면 어기조사가 없이도 어조(물음표)에 의해 의문기능을 수행한다. 의문 어기조사는 의문 표기 유무의 판정 기준이 문장에서 의문의 정보를 담고 있으면 의문표기가 될 수 있는데 반해 의문의 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면 의문표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4) 가. 要吃? (먹으려고?)
나. 是这个人? (이 사람이야?)

중국어에서 한국어 의문사와 대응하는 문법 범주를 의문대사(疑問代詞)라고 하는데 의문대사는 특지의문문에만 사용된다. (5)에서 의문대사는 의문문에서 화자가 모르거나 알기를 원하는 정보를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5) 가. 你在吃什么水果? (무슨 과일 먹고 있어?)
나. 现在几点? (지금 몇 시야?)

의문대사의 범주 및 분류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은 다양하지만 여숙상(1944:184)의 기능에 의한 의문대사의 분류는 많은 학자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후행 연구에서 많이 수용되었는데 <표 3>과 같다.

<표 3> 중국어 의문대사(疑問代詞)의 하위 분류

분류	의문대사
사람이나 사물을 묻는 의문사	谁, 什么, 哪
장소를 묻는 의문사	哪儿, 哪里
성질, 형태, 행동, 방식을 묻는 의문사	怎样, 怎么, 怎么样
시간을 묻는 의문사	哪会儿, 多会儿
원인을 묻는 의문사	怎么, 为什么
수량을 묻는 의문사	多, 多少, 几
정도를 묻는 의문사	多

다음으로 중국어 의문문에서 부정사 ‘不’과 ‘没’를 단독으로 사용하거

¹⁰ 여숙상(呂叔湘, 1944)에서는 어조와 어기조사로 语气가 실현되는데 어조는 의문문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어기 조사는 사용을 안 해도 된다고 하였다.

나 다른 요소와 통합해서 이루어진 통사구조로 의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부정사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통사구조 ‘X 不 X’와 ‘술어+没(有)’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 (6) 가. 想不想去旅行? (여행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나. 喜不喜欢韩国? (한국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6)에서 보다시피 동일한 동사나 형용사는 부정사 ‘不’를 사이에 두고 ‘X 不 X’의 형태로 같은 명제에서 상반 관계를 가진 두 명제를 제시하여 의문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정반의문문의 유형에 속한다.

- (7) 가. 妹妹走了没有? (여동생은 갔어?)
나. 饭好了没? (밥 다 됐어?)

중국어 부정사 ‘没’나 ‘没有’는 ‘아니다’, ‘없다’는 뜻인데 분장의 끝에서 ‘술어+没(有)’의 결합형태로 의문을 나타낸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같은 어족의 언어는 아니지만 한중 의문문을 실현하는 요소의 내용관계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한·중 의문문을 실현하는 요소의 내용관계

한국어	중국어
의문어미, 어양	어조(语调)
의문어미, 어양	의문 어기조사
의문사	의문대사(疑问代词)
-	부정 표현

2.2.2 한중 의문문 실현 요소 대조 및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어의 의문 어기조사는 한국어 종결어미와 비슷하게 의문문을 이루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중국어 어기조사와 한국어 의문형 종결어미는 같은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중국어 어기조사 ‘呢, 吗’는 단순한 의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의문형 종결어미 ‘-ㅁ/습니까’, ‘-아/어/여요’와 유사하고

‘呢’는 ‘呢, 吗’보다 의문의 정도가 떨어지고 추측을 나타내는 점에서 한국어 종결어미 ‘-지요’와 유사하다. 한국어 의문형 종결어미와 중국어 이기사는 모두 문장의 끝에서 질문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대일의 대응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왕정, 2014:43).

- (8) 가. 할아버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爷爷, 看报呢?)
 나. 도서관에 갑니까? (去图书馆吗?)
 (9) 가. 吃拌饭吗? (미빡밥 드실래요?)
 나. 外面热吗? (밖에 더워요?)

(8)에서 모두 의문형 종결어미 ‘-니까’로 끝나지만 중국어 의문 어기조사 ‘呢’와 ‘吗’로 번역된다. (9)에서는 모두 중국어 의문 어기조사 ‘吗’로 끝나지만 의문형 종결어미 ‘-(으)래요’와 ‘-아요/이요/여요’로 번역된다. 비록 중국어 어기조사와 한국어 의문형 종결어미는 일대일의 대응관계는 아니지만 수행하는 의사소통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에서 긍정적인 모국어 전이를 일으킨다.

한편, 모국어로 인해 부정적인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 어기조사 ‘呢, 吗’는 단순한 의문 기능 이외에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중국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의향을 물어볼 때는 보통 ‘-(으)래요’와 ‘-(으)니까요’ 등의 종결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모국어 전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 완곡적인 표현 ‘-(으)래요’와 ‘-(으)니까요’에 비해 직접적인 표현 ‘-하/습니까’, ‘-아/어/여요’류의 종결어미를 더 많이 사용하여 완곡적인 표현 ‘-(으)래요’와 ‘-(으)니까요’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까지는 학습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 (10) 가. 吃拌饭吗? (미빡밥 드실래요?)
 나. 去看什么电影呢? (무슨 영화를 볼까요?)

(10)에서는 모두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의문문이지만 중국어는 문장 끝에 ‘呢’와 ‘吗’를, 한국어는 문장 끝에 ‘-(으)래요’와 ‘-(으)니까

요'를 주로 사용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 대조된다.

의문사는 한국어와 중국어 의문문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로 사용 빈도가 높다. 한국어의 의문사든지 중국어의 의문대사든지 의문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화자가 모르거나 알기를 원하는 정보를 대체하는 지시 기능을 갖는다. 후문옥(侯文玉:2012, 재인용)은 아래 <표 5>와 같이 의문사의 지시 기능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문사를 분류하였는데 보다시피 한중 의문사는 지시기능을 수행할 때 의미가 유사하며 서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한중 의문사의 지시기능 분류

지시 기능	한국어 의문사	중국어 의문사(의문대사)
사람이나 사물을 묻는 의문사	누구, 무엇, 무슨, 어느	谁, 什么, 哪
시간, 장소를 묻는 의문사	언제, 어디	哪儿, 哪里, 多, 会儿
수량을 묻는 의문사	몇, 얼마	几, 多少
상황, 방식, 방법, 원인을 묻는 의문사	어떠하다, 어떤, 어떻게, 어찌하다, 왜, 어찌	怎样, 怎么, 怎么样, 为什么

이상으로 한중 의문문의 의문기능 실현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음 장에서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가 문장의 끝에 쓰여서 의문문으로 실현될 때 어떤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의문문이 의문기능을 나타낼 때 어떤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며 더 나가서 같은 의문 의미를 나타내는 한중 의문문이 의미기능을 실현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3. 한중 의문문의 대조 분석 및 결과¹¹⁾

3.1 -계

<표 6>의 '표준국어대사전'과 '한국어 어미·조사 사전'에서만 세 가지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¹¹⁾ 본고에서는 주로 '표준국어대사전-a', '한국어 문법사전-b', '한국어 어미·조사 사전-c',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2-d', '한국어 기초사전-e'를 참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본고의 의문문의 의문기능(화자가 청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부합되지 않는 의미, 이렇다면 '반문, 의심, 염려, 명령, 감탄 등'과 같은 의미는 본고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표 6> 의문기능을 가진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게’의 사전적 의미

-게	a	b	c	d	e
1. 상대의 의도를 묻는 것을 나타낸다. ‘-려고 그래?’의 뜻에 가까우며, 흔히 상대의 행위가 화자에게는 약간 뜻밖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다. 예)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했는데 밥 안 먹게?	o	o	o	o	o
2. 한 번 짐작하여 답해보라는 뜻을 나타낸다. 예) 가: 오늘 산 옷 세 벌 중에 뭐가 제일 비싸게? 나: 세 번째 옷이 제일 비싸 보여.	o		o	o	o
3. 앞의 내용이 그리하다면 뒤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라고 추측해 물음을 나타낸다. 예) 쌍둥이 언니가 이렇게 예뻐다니 그림 너도 예뻐게?	o		o		

본고에서도 <표 6>에 따라 ‘-게’의 의미를 세 가지로 보고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 의문을 나타내는 용례가 모두 25 개 나타났는데 그 중 상대의 의도를 묻는 용례가 16 개로 가장 많았고, 짐작하여 답해보라는 의미가 6 개, 반어적인 의미가 3 개 나타났는데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11) 가. P1: 용산 가서 씨디롬만 사게? (去龙山你(要)只买 cd 存储器吗?)

P2: 어 시디롬 사고, 너 시간 있으면 저기 논현동 갈래?

P1: 그 그 그 시간은 안 될 길. <일상대화>

나. P1: 언니 이거 녹음해서 뭐 하게? 언니 사랑해, (姐姐,你录这个要做什么? 姐姐我爱你)

P2: 이런 가식적인 것 같으니라구. <인상대화>

(11)에서는 모두 ‘-려고 그래?’의 뜻에 가까우며 화자가 청자의 의도를 묻는 것을 나타내는데 (11-가)는 억양(볼음표)와 의문어미 ‘-게’가 함께 사용되어 의문 기능을 나타내고 중국어로 번역된 의문문은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양태조동사 ‘要’와 의문 어기조사 ‘吗’가 함께 사용되어 상대방의 의도를 질문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11-나)는 의문 대명사 ‘무엇’과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게’가 함께 사용되어 의문기능을 나타내는데 중국어로 번역된 문장은 양태조동사 ‘要’와 의문대사 ‘什么’가 함께 쓰이어 상대방의 의도를 질문하는 ‘-게’의 의미를 나타낸다. 비록 동일한 의문의미를 나타내지만 한중 의문문 모두 의문기능을 실현하는 요소가 일치하지 않다.

(12) 가. P1: 뭔데? 뭔데가 영어로 뭔게? (你猜‘什么’用英语叫什么?)

p2: 왓, <수업대화_과외지도>

나. P2: 촛불두 있네~

p1: 촛불을 후:: 끄니까 누가 나타났게? 풍::차가 타났대요::

(把蜡烛熄灭后, 你猜谁出现了? 风车出现了.) <강의>

(12)에서는 의문 대명사 ‘누구’, ‘무엇’과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게’가 함께 쓰여서 화자는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자에게 ‘추측하여 답해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를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 중국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특정한 추측 표현 ‘猜’과 의문대사 ‘谁’, ‘什么’ 등이 함께 어울려서 ‘추측하여 답해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한국어 의문문은 ‘의문사+의문어미’로 중국어 의문문은 ‘추측 표현+의문대사’로 의문기능을 실현하였는데 의문의미는 같지만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요소는 다르다.

3.2 -(으)려고

보다시피 세 사전에서는 모두 ‘-(으)려고’가 ‘청자의 의도를 묻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표 7> 의문기능을 가진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으)려고’의 사전적 의미

-려고	a	b	c	d	e
1. 화자가 주어의 의도를 묻는 것을 나타낸다. 예: 이 시간에 어딜 가 <u>려고</u> ?		o	o	o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 용례가 모두 17 개 나타났는데 ‘청자의 의도를 묻는’ 예문은 16 개, 반문을 나타내는 예문은 1 개 나타났다.

(13) 가. P1: 뭐 할려고?¹² (你要做什么?)

¹² ‘뭐 할려고?’는 맥락에 따라 화자가 의도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아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예: 가. (순이가 밖으로 나갈 때 순이에겐 엄마가 질문하는 경우)

엄마: 순이야, 뭐 할려고?

순이: 네, 오이 따서 냉면이나 해 먹으려구요.

예문 (가)에서 엄마는 순이가 밖에 나가는 것은 무언가를 할려고 하는지를 눈치채시고

- P2: 뭐 찾을 세 있어요. <수업대화_과외지도>
 나. P1: 만날려고? (要见面吗?)
 P2: 네. <인상대화>

(13)에서는 모두 의문 의미를 나타내지만 한층 의문문 모두 의문기능을 실현하는 요소가 일치하지 않다. 이를테면 (13-가)에서는 각각 의문어미 ‘-려고’와 의문 대명사 ‘무엇’의 결합형태로 의문기능을 실현하였고 (13-나)에서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리고’와 억양(돌음표)를 사용하여 의문기능을 실현하였다. 또한 (13-가)의 중국어 의문문에서는 양태조동사 ‘要’와 의문대사 ‘什么’의 결합형태로 (13-나)의 중국어 의문문은 양태조동사 ‘要’와 어기조사 ‘吗’의 결합형태로 의문기능을 실현하였다.

3.3 -고/구

사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8> 의문기능을 가진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고/구’의 사전적 의미

-고/구	a	b	c	d	e
1.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뜻을 나타낸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약속이 있고?	o		o	o	o

손옥현(2009:56)에서는 ‘-고’가 종결어미로서 의문문에 사용된 경우, ‘-고’는 단순히 질문의 기능을 하기보다 화자가 청자에게 확인을 하기 위한 기능으로 올림의 억양을 수행한다고 하였다.¹³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와 사전에 근거하여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고/구’의 의미를 상대

‘뭐 할려고’ 질문하였는데, ‘뭐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 차, 질문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문 (나)에서 과외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한 것은 ‘무엇’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이므로 발화 시, 억양은 위의 예문과 반대로 ‘뭐’에 상승조로 발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예: 나. P1: 뭐? 할려고?

¹³ 손옥현(2009:56)에서 발제하였음을 밝힌다.

예: (새벽이 도둑을 보고 놀란 영숙을 집에 데려다 주자 영숙의 아들 태풍이 영숙과 새벽에게 말하고 있다. 새벽-20대 여, 태풍-20대 남, 친)

새벽: 제 방에 방법창 뚫고 도둑이 들었는데, 아줌마가...

영숙: 뭐 도둑?

태풍: (새벽에게)나친 넌 있고? (확인) (엄마에게)괜찮아요? (새벽에게) 괜찮아? 어니 봐!

방에게 묻기, 확인 질문 두 가지로 보고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 의문을 나타내는 용례가 모두 69개 나타났는데 그 중 ‘상대방에게 묻기’가 47개, ‘따져 묻기’가 1개, 사전에 없는 의미 ‘확인 질문’이 21개를 차지했다.

(14) 가. P2: 불도 다 끄고? (把灯也都关掉吗?)

P6: 안 돼. 불 끄면 안 돼. <일상대화>

나. P2: 언니 몇 살이고. 스물여섯이야? (姐姐,你几岁? 二十六了吗?)

P1: 다섯이요. <일상대화>

(14-가)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고’와 억양(물음표)가 함께 사용되어 의문기능을 실현하였으며 (14-나)는 의문 수사 ‘몇’과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고’가 함께 사용되어 의문기능을 실현하였는데 (14)에서 보나시피 의문의미는 같지만 의문기능의 실현요소는 다르다. (14-가)의 중국어 의문문은 의문 어기조사 ‘吗’로 (14-나)는 의문대사 ‘几’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뜻’을 나타내었는데 중국어 의문문 역시 의문의미는 같지만 의문기능을 실현하는 요소는 다르다.

(15) 가. P2: 전체적으로 이케, 전에:: 과거에::, 화장품이나 의약품 사용하셔서, 알러지 반응 일으키신적 있으세요?

P1: 그거는 없어요.

P2: 그거는 없으시구? (那个没有吧/不过敏吧?)

P1: 예. <구매대화>

나. P4: 그때 처음 뵈 기였어요?

P2: 네.

P2: 예전에는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얘기해서만 알고 계시구?

(以前只是, 以前只是听说过吧?)

P2: 그치. <일상대화>

(15)에서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고/구’가 억양(물음표)와 함께 쓰여 상대방에게 정보를 확인하거나 들은 사실을 되물으면서 확인하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중국어로 번역한 문장은 추측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吧’로 의문기능을 실현하였다.

3.4 -는데

세 사전에서는 ‘-는데’의 의문 의미를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며 물어보는 뜻’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9> 의문기능을 가진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는데’의 사전적 의미

-는데	a	b	c	d	e
1. (의문사와 함께 쓰이어)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며 물어보는 뜻을 나타낸다. 예: 뭐 먹었는데?	o		o	o	

백수진(2010:54)에서는 생략에 의한 ‘-는데’는 양보설명 의 ‘-는데’로 끝난 반화에 담화 기능으로 반문이 나타나는데 이때 반문을 통해 상대방을 질책하는 의도와 다시 물음으로 해서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고¹⁴ 문법화에 의한 ‘-는데’는 선행발화나 주어진 상황에 화자가 청자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¹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는데’의 의미를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며 물어보는 뜻’으로 보고 코피스를 분석한 결과, 용례가 모두 133 개 나타났는데 의문사와 함께 쓰여 의문을 나타내는 예문은 모두 132 개, 사전에 제시되지 않은 반문을 나타내는 예문은 하나 나타났다.

- (16) 가. P3: 야야 너 몇 시에 가야 되는데? 일찍 가야 돼? (喂喂~你得几点去? 得早点回去吗?)
 P2: 한 여덟시쯤? <일상대화>
 나. P1: 어디 자주 가는데? (常去哪儿?)
 P2: 고수부지. <일상대화>

¹⁴ 백수진(2010:54-55)에서는 반문을 통해 상대방을 질책하는 의도와 물음으로 해서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 두 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예문을 제시하였다.

나. 현수: 너. 뭐. 지금 이거. 같이 죽사고!!!

정남: 죽기는, 앞길에 구만런데. (질책) <영화 ‘과속스캔들’>

다. 덕훈: (어정쩡하게 마주 앉으며) 부순 날인데. (정보 요구)

인아: 불 끄자

덕훈: 부순 날인데. (정보 요구)

인아: (답하지 않고) 하나야, 두울.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¹⁵ 아래 예문은 백수진(2010:65)에서 발췌하였다.

인아: 자기, 나 좋은 일 있다?

덕훈: 좋은. (한없이 다성) 뽀데에?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16)에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는데’는 의문사 ‘몇’, ‘어디’와 함께 쓰이어 의문기능을 실현하였고 중국어 의문문도 한국어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의문대사 ‘几, 哪儿’로 의문기능을 실현하였다.

(17) 가. P2: 켜 약간 정순 막~ 그런 쪽인데, 화장, 색조 화장 부분만! 전지현이 하는 거예요.

P1: 아:: 같이 가는데? (啊~ 一起去吗?)

P2: 예, <수업대화_과외지도>

나. P2: 차라리 남산 공원 올라가서 분수 틀어 놓는데 시원한데 거기서 놀겠다.

P1: 남산 공원? 남산 도서관 있는데? (南山公园? 在南山图书馆那里吗?)

P2: 예. <일상대화>

(17)에서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는데’가 억양(물음표)가 함께 쓰이어 의문기능을 실현하였고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의문문은 모두 의문 어기조사 ‘吗’에 의해 의문기능을 실현하였다.

3.5 -다고/구

새 사전에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다고/다구’의 의미를 ‘들은 사실을 되물으면서 확인함’이라고 하였다.

<표 10> 의문기능을 가진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다고/구’의 사전적 의미

-다고/다구	a	b	c	d	e
1. (두루 낚춤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들은 사실을 되물으면서 확인함을 나타낸다. 예: 구두쇠로 유명한 형이 저녁을 사겠다고? 왜?			o	o	o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 의문을 나타내는 용례가 97 개로 모두 ‘확인 질문’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자세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18) 가. P2: 나 아침에 울었그녕 언니?

P3: 울었다고? ((你)哭了嗎?)

P2: 응. 몇 번 울었어요. <일상대화>

나. P2: 지영아랑 뭘 먹었다고? ((你)跟志颖吃了什么?)

P1: 컷자. <일상대화>

(18-가)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다고/다구’와 억양(물음표)를 함께

사용하여 의문기능을 실현하였고 (18-나)는 의문 대명사 ‘무엇’과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나구’를 함께 사용하여 의문기능을 나타내었는데 의문의미는 같지만 의문기능을 실현하는 요소는 다르다. (18-가)의 중국어 의문문은 의문 어기조사 ‘吗’로 (18-다)는 의문대사 ‘什么’로 의문기능을 실현하였는데 동일한 의문의미를 나타내는 중국어 의문문 역시 의문기능을 실현하는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로 사용된 의문문이 의문기능을 실현할 때와 이를 중국어로 번역한 후의 중국어 의문문이 의문기능을 실현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한·중 의문문의 의문기능 실현 요소의 대응관계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문법적 의미	한국어 의문문	중국어 의문문
-게	1.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는 뜻을 나타낸다.	‘-게’, 억양(물음표)	양태조동사 ‘要’, 어기조사 ‘吗’
		‘-게’, 의문사 ‘무엇, 어디, 무슨’	양태조동사 ‘要’, 의문대사 ‘什么, 哪儿’
-고	2. 짐작하여 답해 보라는 뜻을 나타낸다.	‘-게’, 의문사 ‘누구, 무엇, 몇’	추측 표현 ‘猜’, 의문대사 ‘谁, 什么, 几’
		‘-고’, 의문사 ‘누구, 무엇, 몇, 어디, 얼마, 왜, 어떻게, 어찌하다, 어떤, 무슨, 어떤’	추측 표현 ‘猜’, 의문대사 ‘谁, 什么, 怎么’
-는데	화자가 주어의 의도를 묻는 것을 나타낸다.	‘-려고’, 의문사 ‘누구, 무엇, 몇, 어디, 얼마, 왜, 어떻게, 어찌하다, 어떤, 무슨, 어떤’	양태조동사 ‘要’, 의문대사 ‘谁, 什么, 怎么’
		‘-는데’, 억양(물음표)	양태조동사 ‘要’, 어기조사 ‘吗’
-는데	일정한 설명을 요구해 물어보는 뜻을 나타낸다.	‘-는데’, 의문사 ‘누구, 무엇, 몇, 어디, 얼마, 왜, 어떻게, 어찌하다, 어떤, 무슨, 어떤’	어기조사 ‘吗’
		‘-는데’, 의문사 ‘누구, 무엇, 몇, 어디, 얼마, 왜, 어떻게, 어찌하다, 어떤, 무슨, 어떤’	의문대사 ‘谁, 多, 什么, 几, 哪儿, 为什么, 怎么样, 怎么, 哪, 什么样’
-고	1.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뜻을 나타낸다.	의문사 ‘몇, 얼마, 왜’, ‘-고’	의문대사 ‘几, 多, 为什么’
		‘-고/구’, 억양(물음표)	어기조사 ‘吗’
-다고	2. 상대방에게 사실을 확인함을 나타낸다.	‘-고/구’, 억양(물음표)	어기조사 ‘吧, 吗’
		의문사 ‘무엇, 몇, 얼마, 어떻게’, ‘-다고’	의문대사 ‘什么, 几, 多, 怎么’

	나타낸다.	‘-다고’, 억양(물음표)	어기조사 ‘吗’
--	-------	-------------------	----------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가 의문기능을 할 때 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억양(물음표)와 의문사 ‘누구, 무엇, 몇, 어디’ 등이며 번역된 중국어 의문문이 의문기능을 실현할 때 영향을 받는 요소는 어기조사 ‘吗, 吧’와 의문대사 ‘什么, 谁, 几, 哪儿, 多’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확인 질문을 나타내는 ‘-다고’의 의문문에 대응된 중국어 의문문에서는 어기조사 ‘吗’와 의문대사로 의문기능이 실현된 반면에 확인과 추측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吧’로 의문기능을 실현한 중국어 의문문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표 11>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고’의문문에 대응된 중국어 의문문에서는 어기조사 ‘吧’가 한 번만 나타났으며 중국어 의문문이 의문기능을 실현할 때 어기조사 ‘吗’가 주로 나타났는 바 이는 앞서 제 2 장에서 설명했듯이 어기조사 ‘吗’가 의문 어기조사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게’가 ‘짐작하여 답해보라는 뜻’을 나타낼 때 한국어 의문문은 주로 의문사로 이에 대응된 중국어 의문문은 주로 추측 표현 ‘猜’와 의문대사 ‘谁, 什么, 几’로 의미기능을 실현하였고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게’와 ‘-려고’에 대응되는 중국어 의문문은 모두 양태조동사 ‘要’와 의문 어기조사 ‘吗’의 결합형태, 양태조동사 ‘要’와 의문대사의 결합형태로 의문기능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고’와 ‘-다고’가 의문 어기조사 ‘吗’로 의문기능을 실현한 점은 같지만 ‘-다고’의 의문기능을 실현하는 요소가 ‘-고’에 비해 좀 더 다양하다는 것을 <표 1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중에서도 ‘-는데’가 다양한 의문사와 함께 어울려 의문기능을 실현하며 의문사와 함께 사용되어 의문기능을 실현하는 빈도수가 한중 의문문 모두 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의 한중 의문문에서는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요소 중에 억양(물음표) 및 어기조사의 사용 빈도수

가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¹⁶.

4. 결론

본고는 구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가 의문문으로 실현되어 의문기능을 나타낼 때와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의문문이 의문기능을 나타낼 때를 대조하여 의문기능을 실현하는 요소의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밝힘으로써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어권 중국어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6 한·중 의문문의 의문기능 실현 요소의 사용 빈도수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실현 요소	-게	-고	-는데	-려고	-다고
한국어 의문문: 여양(불음표)	55%	88%	2%	65%	87%
중국어 의문문: 어기조사	55%	88%	2%	65%	87%
한국어 의문문: 의문사	45%	12%	98%	35%	13%
중국어 의문문: 의문대사	45%	12%	98%	35%	13%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 무호민(2013), 「한국어 의향법과 중국어 어기체계의 대조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봉자(1999),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 Xing xiaofang(2013), 「한·중 의문문의 대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남(2014), 「한중 의문문 대비 및 교육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옥현(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종결기능 연결어미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옥현, 김영주(2009), 「한국어 구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양상 연구」, 『한국어 의미학』, 28호, pp.49-71.
- 왕정(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의문문 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오(2005), 「구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어미 연구: 비격식체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설쟁(2014),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의문기능을 가진 종결어미 교육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자·이종희(2010),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 진설(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의문기능을 가진 종결어미 교육 방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찰스 N.리 외 2명(2015), 『표준 중국어 문법』, 한울아카데미
- 『표준국어대사전』, www.stdweb2.korean.go.kr
- 『한국어기초사전』, www.krdict.korean.go.kr
- 王理嘉, 陆俭明(2006), 『现代汉语』, 北京大学中文系
- 丁雪欢(2010), 『汉语疑问句作为第二语言习得的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投稿截止日:2016年 9月15日
审查刊登日:2016年11月15日